☞ 25면에서 계속

상대의 그릇된 행동을 볼 때 '옛날 내 모습'으로 보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되고 안 되고도 놓으세요



그림 · 최주현

는 거 뭐라 그러죠? 머리 빠지고 그러는 거,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마음도리를 쥐고 가는 사람은 구역질도 안 나고 편안하게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무수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역질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대요.

그게 어디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 대로 자기의 주인공이 지켜주고 해결사가 돼 주고, 또 모든 걸 보호해 주고 나가니까, 자기의 보현신이란 말입니다. 이 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조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해서 바로 보현신으로 나툰다는 얘기죠. 생략해서 지금 현재 말로 한다면, 여러분의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호하는 거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 입문해서 다닌다, 또 다른 종교에 입교해서 다닌다 이거를 딱 떠나세요. 이 마음공부란, 갓난 어린애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응애' 하고 우는 겁니다. '응애' 하고 울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하고 묘한 진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진리 안에 모든 생활이 있으니 이게 심성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거나 타의의 이름과 형상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 똑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고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로 몰려들었지만 그렇게 몰려들고 보니깐 갈 길이 막혔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각자,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보아라. 각자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고 찾아야 공덕이 있지 만약에 타의의 형상과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한다면 그 또한 도깨비 같고 귀신 같느니라."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랬으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만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없다면 무효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혹은 지구를 한 손으로 들든지 반쪽 손으로 들든지, 한 손가락으로 들든지 두 손가락으로 들든지, 들어야 지구의 수명도 길어지고 더 넓혀서 우리가 나누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또는 생명이 안 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꽉 찼어요, 생명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즉 말하자면 모든 혹성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상세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화성에도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꽉 차 있는 걸요. 그 모두가 살아나가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먹으면 똥 누죠? 자야 낮에 일을 하죠? 그것은 가운데 배 끈을 매야 되죠? 그래서 중세계예요. 우리가 나타나려면 그냥 나타나고 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다가 떠날 때는 없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세계로 지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발로 땅을 딛고 다니듯이 땅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질척한 데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알로 낳는 것도 있고, 태로 낳는 것도 있고, 모두가 차원에 따라서 차례 차례로 자기 삶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지금 주어진 채로, 더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지고, 더 좋게 되면 상천세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자기의 차원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어떤 때는요, 길을 가다가 다리를 못쓰는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날은 추운데 손은 제대로 못 쓰고 한발한발 떼어놓으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불고 눈이 들이치고 그러는데 그 한 고개를 넘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다리를 제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좀 그 사람이 쉽게 가게끔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그만 일이 아니죠, 큰 일이 따로 없고 조그만 일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빠르겠습니까?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빠르겠습니까?

▲신도1: 주인공에다 관하면 안 됩니까?

▲스님: 하하하. 여러분이 '관(觀)이다' 하면 그 관하는 속에,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용도가 나외요. 보이는 대로 용도가 달라지죠. 저걸 브면 저것대로 달라지고 이것을 보면 이것대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관하는 그 한마음 속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작은 거 용도에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용도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신도2: 그 사람과 저하고 둘이 아니니까 한자리가 돼서 잘 가게끔 이끌라고 마음자리에 관하는 거죠.

▲스님: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혜를 좀 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가까운 어느 집의 사람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몸이 오지 않겠소? 쏜살같이 와서 '어유, 추운데 어떻게 가시냐' 그러면서 여길 끼고 그냥 가더라구요. 언젠가 한번 또 여기 와서요, 저 아래 건물을 안 지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엎드려서 오줌을 싸서 그게 얼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들창을 열고 내다보니까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뗄려고 하니 떼져요, 그게? 흔들흔들 하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눈도 뜨지 못하고, 그럴 때 얼른, 예전부터 그런 때는 묘안이 생기더군요. 옆 집에 있는 누구라도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분한테 얘길 하려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웬 두 사람이 저 위에서 내려오더니만 왜 그쪽을 봅니까, 또? 하하. 보더니 그 사람이 흔들흔들 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됐나 그러고선 둘이 와서 그냥 그 얼은 거를, 오줌을 싸서 얼은 거를 떼어 가지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들쳐업고는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보더니만 '이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가는 걸 보고 문을 닫았어요.

사람사람이 어느 사람 쳐놓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잘산다고 하더라도 인생파도는 파도대로 치니까요. 그런데 그 파도가요, 아주 묘한 거죠. 파도가 치지 않고 소용돌이가 치지 않는다면 물밑의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양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몸이 배와 같은 거죠. 이 몸이 배라면 뱃속의 많은 생명들을 중생으로 비유한다면 선장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죠? 그럼 선장이 몸인 배를 끌고 가는데 의식들이 그냥 이리 왈 저리 왈 끄달리고 온통 이리로 저리로 끄달리면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이러고 온통 난리들을 친다면 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흔들려서 죽도 밥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선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항상 주인공에다 진짜로 믿고 맡겼으면 그대로 믿고 맡기라고 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다 버리는 게 믿는 거다. 다 버리지 않고는 거기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자기라면 그렇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고 죽는 것도 네 법이고 사는 것도 네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자기 주인공이 껄껄 웃으면 자기도 좋아서 껄껄 웃게 되는 거예요.

색경을 한번 보세요. 색경을 보면서 손을 들거나 또는 눈을 흘기거나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색경을 보는 육신이 자기라면은 그렇게 색경을 보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 그림자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마르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 뜻을 모르신다면 아니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것도 그냥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돌아가고 있구요. 지금 내 말도 돌아가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엄경에 '머물러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머물러 찰라찰라 화해서 나툰다' 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머무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좌선이라든가 입선이라든가 행선, 또는 와선이 드러눕고 앉았고 섰고 일하고, 이러는 것이 몽땅 다 끊어지지 않고 참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네 개의 참선이 하나의 참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도량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보다도 더 곱쟁이, 여러분의 곱쟁이가 내면으로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혼자만, 이 껍데기 나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자부처들이 듣고 있어요. 그 참, 볼 수만 있다면 멋지죠, 하하하.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연비를 받는 것이 보기에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건 부처님 한도량에서 내려서, 오방천으로 하여금 사방천에서 모두 여러분을 응시하면서 찍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크라고 합시다.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말로 청와대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표시, 마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버리고 가도 '너는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려느냐,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삶의 권리는 얼마나 가지고 나가려느냐.' 하는 거죠, 자기 원대로. 그러고 '어떠한 자식이 너한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고, 다 자기 스스로가 알게 해서 스스로 받아 가지고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시는 생명으로 받지를 않겠소' 한다면 '그럼 넌 천상으로 가거라' 이럴 테죠, 하하하….

※위 법문은 1997년 12월 21일 수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최면수입외 대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가 될 수 있다.

※ 특강내용

나-노 파동 요법을 알게 되면 일주일만에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적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주파수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나-노 파동 요법」으로 공명을 일으키게 하면 자신이나 타인이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거나 몸속에 숨어 있는 영가들이 나타나게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영혼적 현상들을 바르게 인도(제령) 하고 정리(천도)하는 기법「나-노 파동 요법」입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중압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